



안전의 생활화로 안전의 리더를 꿈꾸며

-Energy Leader LG Power (주)부천열병합발전소-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민영화 1호인 기업이 있다. 1호답게 건립 이후 단 한 건의 재해도 이곳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98년에 건립된 이곳은 무재해 5배를 앞두고 민영화되어 12월 28일은 무재해 2배 달성에 재도전한다.

Energy Leader LG Power(주)부천열병합발전소(이병춘 소장)가 오늘 찾은 기업이다.

과거 한전 부천복합화력과 지역난방공사 부천사업소를 IG그룹과 미국 Texaco사가 합작으로 2000년 9월 1일에 LGPower(주)로 다시 태어났다.

현재 121여명의 인원으로 시설용량 44kW(가스터빈 3대, 증기터빈 1대)와 열공급 전용보일러 2대(100Gcal/hr)를 운영하고, 부천 및 인천지역 약 8만세대에 전력과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LNG)를 사용하고 대기 환경에 대한 환경청의 24시간 원격감시 설비를 운용함으로써 무공해 발전소 만드는데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특히, 환경보전 및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표로 삼아 환경안전정책을 수립하여 불안정한 근무조건과 업무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통제하며, 모든 업무에 안전 및 보건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경영진은 안전한 업무환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환경안전 프로그램의 관리, 실행 및 개선 등에 많은 관심과 책임의식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이란 내연발전 방식인 가스터빈 발전기와 일반 화력발전 방식인 증기터빈 발전기를 조합한 복합발전방식으로 전력과 증기를 동시에 생산 공급하는 설비이다.



▲ 이병춘 소장

위험공정에는 빈틈없는 안전활동

전력은 전력수요처에 공급하고 증기는 물을 가열하여 인근 아파트나 주택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LG Power (주)부천열병합발전소는 증기온도가 500도가 넘고, 압력은 약 80kg/cm², 전압 154,000V의 고압전기 설비로 취급하는 설비 및 재료 자체에 엄청난 위험이 내제되어 있어, 한순간의 부주



의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인명 및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BSM에 규정된 안전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작업, 즉 화기작업, 고온작업, 전기차단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제한공간 출입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작업책임자, 운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을 한 후에 작업토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훈련관찰제도(STOP)를 도입하여 사내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불안전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IGPow(주)는 2000. 9. 1 영업 개시 이후 무재해 1배수를 기록하였으며, 2002. 12. 28에 2배수 달성인 눈앞에 두고 있다. 수치 상으로 2배수라고는 하나, 과거 한전시절에도 무재해 5배수 목표를 3개월여 남겨두고 IGPow(주)로 매각된 점을 볼 때 부천열병합발전소에서는 발전소 준공 이래 현재까지 계속 무재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실적이다.

다각적인 안전활동 전개

IGPow(주) 부천열병합발전소에서는 일일 안전패트를 제도를 꼽는다. 이 제도는 기술직



간부가 매일 현장을 순회 점검하면서 지적된 불안전사항을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매일 소장에게 보고하여 향후 위해요인이나 불안전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하는 제도로 다른 회사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IGPow(주)는 자체 환경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결같이 일일 안전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이 밖에 IGPow(주) 부천열병합발전소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형식적으로 만이 아닌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펼친다.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담당설비별로 합동안전점검과 소방설비 점검을 실시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발전설비 사고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비운전자 위주로 가상사고 모의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상대형사고 대응절차 훈련 및 고장복구 모의훈련을 전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비상사고시 안전사고 예방과 설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발전소를 방문하는 방문

객이나 각종 공사 작업자는 발전소에서 자체 제작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위험개소 등을 알리는 방문객 안전 비디오투 시청한 후 현장에 출입토록 하여 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

부천열병합발전소는 93년 건립 이래 현재까지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병춘 소장 또한 93년에 이곳 책임자로 있으면서 재해 없는 안전한 직장을 꾸며가고 있으며, 발전소 근무한 이래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병춘 소장이 있는 곳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가능하였다.

『안전은 남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내가 행하는 것이지요. 또한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안전에 대한 소신을 펼치는 이병춘 소장이 어떻게 무재해를 가꿔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대답이다.

끝으로 안전은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생



명, 손실을 막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11대 기본수칙 지키기는 물론 사내 뿐만 아니라, 사외에서까지 지켜져야 한다. 근로자가 다치면 회사에서도 손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안전은 기본에서 비롯되므로 항상 직장 외에 교통, 운동, 여가에게까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생명은 고귀한 것이니 만큼 안전을 생활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병춘 소장의 말씀을 끝으로 본 취재를 끝마친다.



〈취재 : 최종덕 기자〉